

# 완주군, 상수도개발 본격화

### 2020년까지 1105억 투입 3만여세대 맑은 물 공급 군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완주군이 오는 2020년까지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상수도 개발에 개발에 1,105억원을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완주군은 지난 2010년 이서면 배수지 3,000톤 증설에 이어 2013년 상리면 배수지 1,200톤 증설과 관로공사에 224억원을 투자해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고산면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배수지 1,700톤 증설 및 배수관로 26km 설치를 위한 고산면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에 135억원을 투자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비봉면과 운주면 일원 송·배수관로 98km와 배수지 500톤, 2개소 설치 등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에 각각 132억원과 182억원 등 총 449억원을 투자,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목적으로 2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화산·경천면 일원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 외에도 소양면 신촌리와 구이면 안덕리 일원 미급수지역 상수도공급을 위해 각각 37억원과 25억원을 투자한다.

군은 삼례읍 노후관 교체공사에도 80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0년까지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보급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3만9,200여 세대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일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부분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있다”며 “계획 중인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 장수군 6차산업 프로그램 체험현장을 가다

### 1박2일간 팸투어 진행... 장수(長壽)식품 선점기반 조성 목적

지역 관광자원활용과 농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장수군 6차산업 프로그램 시범운영 체험단 팸투어 행사'가 지난달 29일 1박2일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에서 추진중인 장수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 중 하나인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장수군의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전북도의 동부권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97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수지역의 농특축산물을 연계한 장수(長壽)식품 선점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수군의 지역지원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이번 행사는 94명의 가족들이 참여하여 장수군의 지역자원과 문화를 체험하였다.

육십령권역센터를 베이스캠프로 해물품농원에서 사과수확, 수확한 사과를 이용한 사과카르페제 피자 만들기 등 지역의 주농산물을 이용한

체험과 논개생가 등 장수 문화관광지 4개소를 방문하여 논개역사그리기와 장수군 한우로 떡갈비 만들기 체험을 하고 마지막으로 랫츠르파크에서 승마 체험을 즐겼다.

단순한 1차 산업 중심의 농업이 아닌, 농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2차, 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체험하며 새로운 형태의 농업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를 통해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수군 우수 농특축산물과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힐링 푸드 및 6차 산업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농특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군, 직원 대상 규제개혁 활성화 교육 실시

### 김유석 대표 초청 강의

무주군은 지난 1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규제개혁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한국스토리텔링발전포럼 김유석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인문 콘텐츠를 통해보는 규제개혁”을 강의했다.



무주군은 지난 1일 한국스토리텔링발전포럼 김유석 대표를 초청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김 대표는 진정한 실천가였던 다산 정약용의 애민정신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다산의 애민을 배우는 목적은 지금과 미래의 내 모습을 정확히 알고 나아가기 위함”이라며 “잔혹하고 절박한 현실에서의 깨달음을 통해 백성을 섬겼던 다산을 통해 지역과 군민을 헤아리는 공직자의 모습을 재성찰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21세기는 융합과 통섭의 시대”라며 “서로 다른 것을 만나게 네트워킹에서 결국에는 의미있는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역량을 펼쳐보자”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제거해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개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은 찾아가는 규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반딧불축제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장과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 규제신고와 관련한 홍보물(부채)을 배부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평생학습·주민자치 어울마당 '성황'

제11회 진안군 평생학습, 주민자치 어울마당이 1일 주민자치위원과 평생학습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예체육관에서 열렸다.

배우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 행복한 미래! 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각 읍면 주민자치 및 평생학습의 다양한 작품 발표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자기계발에 힘써온 읍·면 평생학습인 11명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평생학습

이창로 군수는 “우리군은 군민들과 평생학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농촌형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갖췄다”며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통해 평생학습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군민 모두가 배움의 기회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15주년을 맞은 진안군은 지난 2001년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매년 1,000여 명의 평생학습인을 배출하는 등 10여 개 분야에서 활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 우리 가족 모여라 “여행 가자”

### 5~6일 무주 태권도원 '가을애(愛) 가족 캠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태권도원과 무주군 일대에서 가족의 협동과 화합을 통해 사랑을 키우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이달 5일~ 6일까지 1박 2일간 “태권도원 가을애(愛) 가족 캠프”를 열어 태권도원에서 태권도와 함께하고, 무주 덕유산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가을여행을 진행한다.

1일차, 태권도원에서는 태권도 시범공연과 체험, 국립태권도박물관 및 전방대 관람 등 태권도원을 속속들이 체험하는 “태권도 알고, 보고”와 태권도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가족이 함께 블로그나 SNS로 올려보는 “우리가족 태권도원 스토리”, 캠프피어를 걸친 달빛 명랑운동회인 “우리가족 신도불이, 달빛 운동회”를 갖는 등 가족간의 단합과 친목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태권도원 가을애(愛) 가족 캠프는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무주군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2일차는 오전에 덕유산 케이블카를 타고 향적봉

을 다녀오는 “무주 가을 만끽하기”를 통해 아름다운 단풍 여행도 준비하고 있다.

재단 김중현 사무총장은 “태권도원과 무주군의 정경자연에서 진행되는 ‘태권도원 가을애(愛) 가족캠프’에 참가해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 바란다”며 “수준 높고 재미있는 태권도와 청정자연에 함께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을 자신한다”고 전했다.

이율라, 이번 “태권도원 가을애(愛) 가족캠프”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태권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네이버 예약하기 “2016태권도원 가을애(愛)가족캠프”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무료담요와 물통 등의 기념품과 수료증이 증정된다. \*참가 대상 : 선착순 30가족 (1가족 : 4인 기준) \*참가 비용 : 1인당 55,000원(숙박, 프로그램, 3식, 덕유산 케이블카(1인 15,000원 상당) 포함), 참가 안내 : 태권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ha.do/qst4>, 참가 예약 : 네이버 예약 <http://ha.do/MhCF>.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장수·완주군, 특별교부세 확보

### 무주군

이 지난달 31일자로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태권도 상징거리조성사업비 5억 원을 비롯해 1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로 이는 지난해보다 13억 원 정도 증액됐다.

이로써 군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비롯한 대터~봉길 연결도로 개설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진재들 소교량 정비사업, 설천면 불대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등 7건의 시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확보한 사업비에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들을 위한 임시주차장과 안내소, 화장실 등 편의

시설 설치를 위한 9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 한상술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세에는 주민숙원인 물론,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태권도 성지화를 위한 비담과 노력들이 담겨 기대가 크다”며 “땀 흘려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실현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통하며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와 국회를 찾아가며 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은 10월까지 지역현안 수요 특별교부세를 총 9건에 20억원(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수군에서는 수시로 행정자치부 등을 방문하여 환경, 도로기반, 농업기반, 복지사업 등 지역의 현안수요 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오고 있다.

장수군에 선정된 사업은 장수군 소각시설 설치사업(국비 6억원), 노후 저수지 및 재해위험 정비의 5건(7억원), 장천로 도로화포장 사업(국비 4억원), 통합배치배양센터 조성(국비3억원) 등 총 20억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장수군은 관련부서와의 발

굴합의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을 다수 발굴한 상태이며, 2017년초부터 행정부 방문등을 통해 특교확보에 발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앞으로 지방재정의 열악성을 극복하고,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나 지역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지역현안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국민안전처 소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18억원 요청한 상태이며, 재난안전 특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완주군

이 삼례시정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 탄력은 물론, 군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된 삼례시정현대화사업은 구시장 재건축으로 지역특성과 시장 육성 및 귀농인 청년층 창업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이 될 사업이다. 또 봉동읍 소재지를 경유하는 5호 도로에 주민 및 학생

통학로에 인도가 없어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안전사고 방지 등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원주경찰서~봉동보건지소 도로화포장 사업에도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됐다.

소병주 기획감사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정차권 공조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국립관리소

### 진안군, 생물테러 대응 합동훈련

진안군은 1일 민·관·군·경 합동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진안읍 남남의 광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진안군보건소 주관으로 진안경찰서, 무진장소방서, 육군 제7733부대 1대대, 진안의료원이 참여하고 전북도가 주관했다.

훈련실정은 남남의 광장에서 마을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테러범이 생물테러(탄저균)로 의심되는 백색가루를 살포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훈련내용은 생물테러 의심사건 발생에 따른 기관별 초동대응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로 사고접수, 상황전파 및 출동, 현장통제, 환경계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훈련을 통해 신속 정확한 대응역량강화를 도모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 장수 기념 고평자공동시설 준공

지난 1일 장수군 기념면 희망마을에서는 최용득 장수군수를 비롯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고령자공동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농촌고령자공동시설은 국비 8,500만원, 군비 8,500만원으로 총 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념면 장안리 613-1번지에 공동홈시절 3동, 공동취사장 등 총면적 133㎡으로 고평자 친화형 공동시설 지원을 통해 농촌 고평자의 주거·영양·위생·안전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건축된 시설이다.

마을회관 및 모든 주택에 인접해있어 주민의 접근과 활용이 효율적이며, 마을 주차장과 합터인 모퉁 등 부대시설이 정비되어 있어 공동생활의 기능을 배가할 수 있다.

이율라, 행정 관원 부서간의 복지·의료·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방문진료, 어르신체육동지회,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으로 고평자공동시설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완주 용진 봉사골권역센터 개관

완주군 용진읍 도계·두억·신촌·부령 4개 마을로 구성된 봉사골 권역에 주민들의 지역소득향상과 도농교류의 거점인 될 봉사골권역센터가 문을 열었다.

1일 열린 개관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도·군의원, 권역주민 등 150여명 참석 한 가운데 도계·두억마을 농악대와 한마을예술단의 축하공연과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권역센터는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봉사골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중 기초생활기반사업으로 건축됐으며, 용진읍 간중리 603-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지상 2층, 건축면적 288.36㎡로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 회의실로 구성됐으며, 도농교류 및 봉사골권역의 소득사업인 두부, 김치, 장류 등의 체험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무주 국립관리소 산불예방진화대 운영

무주국립관리소(소장 김중세)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지난 1일에서 다음달 15일까지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무주국립관리소 회의실에서 무주국립관리소 관계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관내 지역 산불예방·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관계자는 “급변 발대식을 통해 직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합심하여 산불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율라, “국민이 국립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